

고정관념의 위협과 인지적 과제의 수행

신 홍 임*
연세대학교

중요한 사회적 성취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인지적 과제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Steele와 Aronson(1995)은 ‘흑인의 지능은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고정관념을 검사상황에서 활성화시켰을 때 흑인 대학생들의 과제수행결과가 현저하게 나빠짐을 관찰하였다. ‘고정관념의 위협(stereotype threat)’으로 지칭된 이 현상은 최근 많은 관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인한 인지적 과제 수행도의 저하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중요한 성취영역에 대한 비참여 및 비동일시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고정관념의 위협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및 이들이 인지적 과제의 수행을 방해하는 경로를 개관하고자 한다. 고정관념의 위협에 대한 연구는 이 효과를 매개하는 정서적, 인지적 경로의 세분화된 탐색을 통해 고정관념 위협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게 하며, 이를 통해 고정관념의 장기적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고정관념의 위협, 과제수행도, 상황적 요인, 개인적 요인, 비참여, 비동일시, 고정관념 위협의 유형

고정관념(stereotype)은 특정 대상이나 집단구성원의 속성(attribute)에 대해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수학이나 과학에 재능이 없다”는 생각은 그것의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관념의 위협(stereotype threat)은 사회적 성취 상황에서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집단 구성원들의 과제수행결과가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보다 현저하게 나빠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현상은 Steele와 Aronson(1995)이 “흑인은 백인보다 지능에서 열등하다”라는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흑인 대학생들의 과제수행결과가 백인 대학생들의 것보다 저조

했던 실험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최근까지 약 300여개의 관련 사례가 국제학술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흑인의 지능검사에서만뿐만 아니라 (Blascovich, Spencer, Quinn, & Steele, 2001; Osborne, 2001) 여성의 수학영역 성취도(Brown & Josephs, 1999; Gonzales, Blanton, & Williams, 2002; Inzlicht & Ben-Zeev, 2000; Quinn & Spencer, 2001; Schmader & Johns, 2003), 빈곤층 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Croizet & Claire, 1998), 노인의 기억과제(Levy, 1996) 등 다양한 사회집단의 인지적 과제 수행에 방해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ele(1997)는 이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직접 연관된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과제

* 교신저자 : 신홍임, (120-749) 서울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사업단/의학교육학과, 전화 : (02) 2228-2506, E-mail : SHIN7038@yuhs.ac

수행결과를 통해 내집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입증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되며, 이러한 감정들은 과제수행능력에 실제로 방해로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사회 집단의 지적 능력에 따른 차이가 사회의 경제·문화적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이론(Bourdieu & Passeron, 1964)이나 사회계층간의 선천적 능력의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들(Herrnstein & Murray, 1994)과는 대조적으로 이 관점은 사회집단간의 차이가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인지적 과제수행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실시된 고정관념의 위협에 대한 주요연구들을 개관하고, 이 현상의 심층에 있는 기제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정관념 위협의 영향 요인

고정관념의 위협은 개인과 상황에 의해 형성된 장애물이다. 고정관념 위협의 크기와 이것의 행동에 대한 영향은 개인과 상황의 특징에 의해 매개된다. 이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정관념의 위협으로 가게 되는지를 좀더 명료하게 규명하기 위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보고된 네 개의 상황적 요인들(집단정체성의 부각, 고정관념과의 연관성, 과제 난이도, 과제의 진단성) 및 세 개의 개인차 요인들(영역과의 동일시, 집단과의 동일시, 고정관념의 타당성에 대한 승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고정관념의 위협이 수학이나 언어영역의 표준화된 검사 결과(예 : GRE, SAT)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상황적 요인들

고정관념의 위협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적 요인들로 다음의 네 가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집단 정체성의 부각(group identity salience)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속한 집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고정관념 위협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초기의 연구결과들은 고정관념 위협의 영향을 자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과 연결된 집단(예 : 흑인, 여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Steele와 Aronson

(1995, 실험 4)은 피험자들에게 언어능력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인종에 대한 사항을 기입하라고 지시했다. 검사 전에 인종기입을 했던 조건에서는 흑인 대학생의 수행결과가 백인 대학생의 것보다 나빴지만, 인종 기입을 하지 않았던 조건에서는 두 집단 간의 수행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 직전 인종이나 성별의 단순한 기입은 피험자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충분하며, 이를 통해 고정관념 위협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Koenig & Eagly, 2005; Shih, Pittinsky, & Ambady, 1999; Stricker & Ward, 2004).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낙인의 표적으로서 갖고 있는 열등감이 고정관념 위협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다. 몇몇 연구들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지 않은 사회집단(예 : 백인, 남성)에서도 고정관념의 위협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Aronson, Lustina, Good, Keough, Steele와 Brown(1999)에서는 백인 남학생들이 수학영역의 과제수행도에서 동양계 남학생들과 비교되었을 때 고정관념 위협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Koenig와 Eagly(2005)에서는 대인관계 검사(the Interpersonal Perception Task-15; Costanzo & Archer, 1993)를 실시하기 전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사회적 감수성(social sensitivity)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조건에서 남학생의 검사결과가 여학생의 것보다 낮았다. 전통적으로 사회 비교과정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이나 남성들에 관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고정관념 위협 효과가 사회적 낙인의 표적들에만 국한되어 나타난다기보다는 과제수행상황에서 외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다양한 사회집단에 일반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정관념과의 연관성(stereotype relevance)

고정관념 위협의 효과는 집단의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과제수행과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Steele와 Aronson(1995, 실험 1)에서 동일한 검사를 지능검사로 소개했을 때 흑인 대학생의 수행결과가 백인 대학생의 것보다 나빴으나, 인간의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검사로 설명하여 고정관념과의 연관성을 배제시켰을 때 이 두 집단 간 수행결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Spencer, Steele과 Quinn(1999, 실험 2)에서 수학시험 점수가 성별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설명을 한 이후 수학 문제를 제시했을 때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들의 점수에 비해 낮았으나, 수학시험에서 성별간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던 조건에서는 고정관념 위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과제에서도 수행상황이 어느 정도 불리한 고정관념과 연결되는지의 정도가 고정관념의 위협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고정관념의 위협효과가 한 집단에 대한 불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유래함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인지적 과제 수행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고정관념과의 연관성을 최소화시키는 상황설계가 이러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제수행상황이 고정관념과 연관되는 정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암시해도 고정관념 위협효과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과의 연관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제해야 하는 작업인 것 같다. Marx와 Goff(2005)에서는 흑인과 백인 대학생들에게 동일한 언어능력 검사를 실시했을 때 흑인 대학생들의 점수는 실험자가 흑인인 조건보다 백인인 조건에서 더 낮았다. 또한 고정관념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자기보고식 문항들(예: “내 검사결과가 좋지 않을 때 실험자가 이것을 내 인종에서 원인을 찾게 될까봐 두렵다.”)에서 흑인 대학생들이 백인 실험자 조건에서 흑인 실험자 조건보다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외집단 구성원은 단순한 접촉만을 통해서도 고정관념 집단의 표적이 부정적인 고정관념과의 연관성을 인식하게 되면 고정관념의 위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간접적인 단서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고정관념의 위협에 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직접적인 단서 혹은 간접적인 단서 중 어느 하나만을 검증한데 비해 Stone과 McWhinnie(2008)는 두 가지 종류의 단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해 검증했다. 이에 관한 첫 번째 가설은 직접적인 단서(예: 과제수행상황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관해 명시함)가 간접적인 단서(예: 실험 실시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외집단 구성원임) 보다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 모형이었으며, 두 번째 가설은 직접적인 단서와 간접적인 단서를 모두 제시할 때가 어느 한 가지 단서만을 제공할 때 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모형이었다. 이에 비해 세 번째 가설은 직접적인 단서와 간접적인 단서가 상호독립적으로 과제수행의 서로 다른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중과정 가설이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단서가 고정관념의 표적이 과제수행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게 할 것이나,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과제를 자동적으로 유연하게 수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비해 간접적인 단서는 고정관념의 표적이 단서를 해석하는데 인지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인지과부하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위의 세 가지 가설의 검증을 위해 Stone과 McWhinnie는 골프 과제를 제시했다. 골프에서 점수는 최종 목표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공을 친 횟수와 최종 지점에서 공을 넣는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 피험자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데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면 피험자는 매번 공을 칠 때 미세한 관점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공을 칠 때 자동적으로 유연하게 수행하는 기능을 방해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단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공을 친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반면 공을 넣는 정확도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단서에 의해 인지과부하가 일어나 작동기억의 기능에 방해를 받는다면 정확도는 떨어질 것이다. Stone과 McWhinnie의 실험에서는 직접적인 단서로서 백인 여대생들에게 신체운동능력과 성차(gender difference)의 관계에 관해 피험자들이 골프를 치기 전에 설명하고, 간접적인 단서로서는 실험자 배경 조건을 여성과 남성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결과는 직접적인 단서와 간접적인 단서 모두 고정관념 위협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었다. 신체운동능력과 성차에 대해 설명한 조건에서는 마지막 목표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골프 공을 친 횟수가 다른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조건(예: 인종간 차이 또는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조건)보다 더 많아 수행결과가 고정관념의 직접적인 단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실험 실시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인 경우보다 여대생들이 각각의 마지막 지점에 공을 넣는 정확도가 더 낮아 간접적인 단서도 고정관념 위협 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모형 중에서는 이중경로모형이 실제값에 대한

기대오차가 가장 적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단서와 간접적인 단서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상호독립적임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복합적인 단서들이 과제수행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서의 제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단서의 영향력을 제거시키는 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고정관념 위협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과제 난이도(task difficulty)

고정관념의 위협은 과제난이도가 높은 과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Spencer et al.(1999, 실험 1)은 수학영역에서 수행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을 사전에 분류한 후 수학 시험을 실시했을 때, 난이도가 높은 수학시험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수행결과를 보였지만, 이러한 차이는 난이도가 낮은 수학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고정관념 위협과 과제난이도간의 관계는 이 효과를 매개하는데 인지적 과정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리한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과제수행상황에서 인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작동기억(working memory)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Schmader와 Johns(2003)에서는 고정관념 위협조건에서 어려운 수학시험문제들을 제시했을 때 여학생의 점수와 작동기억 용량이 통제조건보다 더 적었다. Beilock, Rydell과 McConnell(2007)에서도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만 고정관념 위협 효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작동기억의 음운저장 영역이 방해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과제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고정관념 위협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다른 인지적 과정을 통해 과제수행결과를 방해한다. Beilock, Jellison, Rydell, McConnell과 Carr(2006, 실험 1)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골프 푸팅에서 더 정확하다는 것을 언급하여 남성 골프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이들의 수행결과가 여성 골프선수의 것보다 더 낮아져 고정관념의 위협은 전문 골프선수의 자동적인 수행능력에도 지장을 초래함을 보여주었다. 초보자의 경우 작동기억의 방해로 인해 수행결과가 나빠진 데 비해 전문 골프선수의 경우 자신의 수행결과에 대한 의식적인 모니터 과정에 인

지적 에너지를 소모하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과제난이도가 중간이하인 자동화된 능력의 검사에서도 과제수행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수행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며 관찰할 때 고정관념 위협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제의 진단성(task diagnosticity)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의 위협은 과제를 통해 과제수행자의 능력을 진단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분야에 대해 열등한 능력을 갖는 것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연결된 집단(예 : 수학분야에서의 여성, 지능영역에서의 흑인 등)에게 그 분야에서의 능력을 진단하는 상황은 고정관념 집단의 구성원들을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증하려는데 지나치게 동기화하며,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그들이 좋은 수행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고정관념 위협의 효과는 동일한 과제에서도 제시된 과제가 진단의 목적을 갖지 않고 단순한 정보수집의 차원에서 실행된다고 할 때는 관찰되지 않았다. Steele와 Aronson(1995, 실험 1)은 흑인대학생들에게 실시된 검사가 지능검사로 소개되었을 때, ‘흑인은 백인보다 지능에서 열등하다’는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켜 고정관념의 위협 효과가 나타났지만, 동일한 검사를 지능 진단의 목적이 아닌, 인간의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제의 진단성이 고정관념 위협의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인지는 분명치 않다. Steele와 Aronson(1995)의 네 번째 실험에서는 비진단성 검사로 소개된 과제상황에서도 흑인대학생들에게 검사직전 자신이 흑인인지 혹은 백인인지 질문지에 표시하라고 지시했을 때 고정관념의 위협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효과는 자신에게 불리한 고정관념이 활성화될 경우 비진단적 검사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요인들

일반적으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과 자주 연결되는 흑인, 여성, 노인 등의 고정관념 표적들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고정관념의 위협 효과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고정관념의 위협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개인적 요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영역과의 동일시(domain identification)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분야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는 고정관념 위협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Aronson, Lustina, Good, Keough, Steele와 Brown(1999, 실험 1)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의 백인 남학생들에게 동양계 학생들이 수학분야에서 월등한 성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글을 제시하고, 실험의 목적이 동양계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에 비해 수학분야에서 왜 탁월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동양계 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수학영역에서의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조건에서 백인 대학생들의 수학시험 점수는 통제조건의 학생들에 비해 더 낮아 고정관념의 위협효과가 관찰되었다. Aronson과 동료들의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백인 대학생들에게 질문문항들(예 : ‘나는 수학을 잘 한다’, ‘수학을 잘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을 제시하여 수학분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수학과 자기개념과의 동일시 정도가 높은 집단과 동일시정도가 중간정도인 집단으로 분류했다. 실험 1과 유사하게 고정관념조건과 통제조건에서 수학시험을 실시했을 때 고정관념의 위협 효과는 수학과 자기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하는 백인 대학생들에서만 나타났으며, 수학과 자신과의 동일시정도가 중간정도인 학생들의 경우 이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과제수행자에게 그 영역에서의 성취결과가 개인적으로 중요할수록 고정관념위협에 더 많이 처해있기 때문에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수학영역과의 동일시정도가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점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집단과의 동일시(group identification)

자신이 속한 다양한 사회 집단 중에서 한 개인이 특히 어느 집단과 동일시하며, 사회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지는 고정관념의 위협효과에 영향을 준다.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 이론에서는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구분하며, 인간이 긍정적인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데 동기화되어있다고 한다(Tajfel & Turner, 198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속한 집

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열등함을 암시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에 위협을 주게 된다. Shih 등(1999)은 질문지에 인종 혹은 성별을 기입하는 것을 통해 동양계 여학생들에게 “동양인” 또는 “여학생”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활성화시켰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실험에서 수학시험 정답률은 인종 기입을 통해 수학영역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양인”이라는 정체성을 활성화시켰을 때가 성별 기입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활성화시켰을 때보다 더 높았다. Schmader(2002)는 여학생들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수학시험에서의 고정관념 위협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일련의 문장(예 : ‘여자’인 것은 나에게 있어 중요하다)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여 피험자가 자신을 여성으로서 동일시하는 정도를 조사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수학실력을 검사해보고자 한다는 지시문을 주었던 조건에서 자신을 여성으로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여학생의 수행결과는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의 것에 비해 더 낮았다. 따라서 한 개인이 내집단과 동일시하는 정도는 고정관념의 위협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관념의 타당성에 대한 승인(stereotype approval)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고정관념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많이 보고되고 있다. Learner(1980)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개인이 얻게 되는 결과물이 자신의 능력과 활동에 기초하는 공평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고 했다. 대체로 사회에서 혜택을 누리는 집단일수록 사회적 불평등을 합법화시키는 원리를 좀 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만(Major, Gramzow, McCoy, Levin, Schmader, & Sidanius, 2002), 합법성에 대한 인정은 사회에서 오히려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Jost & Banaji, 1994).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사회의 합법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구성원일수록 내집단에 대한

호감과 동일시정도가 낮으며(Ellemers, Wilke, & Van Knippenberg, 1993), 높은 사회적 지위의 외집단과 연결된 속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Schmader, Major, Eccleston, & McCoy, 2001).

Blanton, Christie와 Dye(2002)에서는 실험에 참가한 여학생들의 41%가 남성이 여성보다 수학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며, 이 여학생들은 수학에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사회비교과정에 영향을 끼쳐, 수학에서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 여학생들은 자신의 수학점수를 다른 남학생들의 것이 아닌, 여학생들의 것만 비교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이러한 성 고정관념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며 거부한 여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수학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다른 여학생들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를 질문지를 통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자기보고의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osek, Banaji와 Greenwald(2002, 실험 2)는 ‘수학/예술’과 ‘남성/여성’에 관련된 단어들을 연결시킨 쌍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암묵적 연상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통해 피험자들의 성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했다. ‘수학-남성’과 ‘수학-여성’에 대한 어휘판단과제 반응시간을 측정했고, ‘수학-남성’보다 ‘수학-여성’에 대한 반응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때 수학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태도로 추정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학/예술’과 ‘나/타인’과 관련된 단어들 연결시켜 각각의 단어 쌍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를 측정했으며 이를 통해 수학과 성 고정관념적 태도를 파악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태도 및 수학과 자신과의 동일시정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남학생들의 경우 수학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태도가 강할수록 수학과 자신과의 동일시정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여학생들은 강한 성 고정관념적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수학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낮았다. 또한 남학생들의 강한 성 고정관념적 태도는 대학입학시 수학영역에서 높은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성 고정관념적 태도가 강했을 때 수학점수가 대체로 낮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학생들이 수학영역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지에 따라 수학에 대한 동일시와 과제 수행결과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Schmader, Johns와 Barquissau(2004)에서는 수학기열 전공의 여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여학생일수록 수학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여학생들은 수학과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형성하고, 추후 진행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다른 여학생들보다 더 적게 나타냈다. 또한 성 고정관념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학생일수록 고정관념 위협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수학영역에서 저조한 과제수행결과를 보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한 개인의 과제수행결과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는 개인이 고정관념과 연결된 상황의 단서를 지각하여 집단 정체성이 부각되고, 자신과 이 고정관념과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과제 난이도, 과제의 진단성, 또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태도 및 영역과의 동일시정도는 고정관념의 위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한 개인이 경험하는 고정관념의 위협은 개인의 대처방식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자신의 특성이나 내집단의 우수사례를 부각시켜 생각해 보면서 연관성을 줄이는 방식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고정관념의 위협이 불합리하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고정관념의 위협 효과는 감소시킬 수 있다.

고정관념 위협의 기제

지금까지 고정관념의 위협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 현상이 어떻게 매개되고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고정관념의 위협 기제가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황과 개인의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이 과정들도 같이 변화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 같다.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의 위협을 매개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이 효과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주요연구들

을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하겠다.

불안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의식할 때 개인은 자신의 저조한 수행결과에 의해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증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때문에 불안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이것은 어려운 과제의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은 불안에 대한 자기보고 및 생리학적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연구들에서 이루어졌다. Osborne(2001)에서는 불안에 대한 자기보고방식을 활용하여 흑인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불안에 의해 매개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어휘, 독해능력, 수학, 시공간능력, 지각적 비교, 기억의 6가지 영역에서 측정하였으며, 각 검사직후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제시하여 검사상황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조사하였다. ‘긴장’, ‘압박감’, ‘초조함’, ‘불편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관련문장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항목이 많을수록 높은 불안수준으로 해석하였다. 결과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흑인학생들의 불안수치가 백인학생들의 것보다 더 높았으며, 불안이 흑인과 백인 학생들 간의 수행결과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불안에 대한 자기보고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예 : Aronson et al., 1999; Gonzales et al., 2002; Keller & Dauenheimer, 2003)에서는 고정관념의 위협과 불안수준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생리학적 측정도구를 활용한 Blascovich 등 (2001)의 연구였다. 여기에서는 불안에 대한 자기보고에서 흑인대학생들이 백인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불안을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혈압측정치는 유의미하게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불안이 고정관념의 위협에 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안에 대한 고정관념 위협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방법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Marx와 Stapel(2006a)에 의하면 이것은 기존연구들에서 불안에 대한 자기보고의 시점이 지연되어 고정관념의 위협과 불안간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저자들은 불안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다가올 상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에서 검사직후에 측정했던 것과는 달리 검사직전에 자기보고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며, 검사 직후에는 좌절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 후 실패한 결과에 대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직후에 측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어려운 수학과제를 제시하고 검사직전과 검사직후에 불안과 좌절을 느끼는 정도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제시하여 조사했다. 예측한대로 불안은 고정관념 위협 상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검사직전에만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좌절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고정관념 위협 조건에서 검사 직후에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보고식 방법이 고정관념의 위협 상황과 연계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고정관념의 위협에 다양한 정서가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서가 어떤 경로에 의해 과제 수행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명료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다.

고정관념의 활성화

Steele와 Aronson(1995)은 흑인 대학생들이 지능검사의 어휘완성과제를 실시한 고정관념의 위협조건에서 통제조건에서보다 흑인과 연결된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관찰했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고정관념 위협의 효과를 매개하는데 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나 행동에 연관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각을 통해 고정관념의 위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Davies 등(2002)에서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포함한 TV 광고(예 : 새로 구입한 주방기구를 보며 기뻐함) 또는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내용의 TV광고(예 : 한 여성이 남성에게 의학적 내용을 유창하게 설명하고 있음)를 여성과 남성에게 과제수행 전에 제시한 후 고정관념의 위협효과를 조사했다. 고정관념적인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본 집단에서는 여성의 수학시험결과가 남성보다 더 나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광고를 본 집단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적인 TV광고를 본 조건에서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관찰되었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여성에게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고정관념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Davies와 Spencer(2001)에서는 지금까지 수학기험에 성차(gender difference)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여성들이 믿을 경우에는 광고에 의한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그들의 수행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고정관념의 위협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Steele 등(2002)은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고정관념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한 개인이 그 집단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자신을 그 집단과 그다지 연결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모두 고정관념의 위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의 여성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여학생에게 활성화되어도 일상에는 이 영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예 : 개인의 성취동기)이 있어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혼자만으로 고정관념의 위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러면 언제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고정관념의 위협을 가장 잘 매개하는가?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강한 요인들(예 : 개인의 의지, 사회적 압력)이 부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경우에는 고정관념에 따른 무의식적 행동의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진다(p.392).” 이것은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진행되어도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고정관념과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을 경우 고정관념의 위협효과가 감소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Marx와 Stapel(2006b)에서 priming을 통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의 수행결과가 모두 나빠졌지만, 수학 검사를 고정관념 위협조건에서 실시했을 때는 여학생의 점수만 남학생의 것보다 낮아졌다. 따라서 이 결과는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개인이 의식하지 못할 때 영향을 받는데 비해 고정관념의 위협 효과에는 개인이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자신을 연관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작동기억 용량의 감소

고정관념의 위협 효과를 매개하는 경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두려움이나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 경로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Schmader와 Johns(2003)는 고정관념의 위협 효과를 매개하는 인지적 과정을 탐색했다. Klein과 Bows(2001)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동기억의 용량이 감소되고, Ashcraft와 Kirk(2001)는 수학영역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문제를 풀 때 수행결과에 대한 내적인 생각과 걱정으로 인해 과제에 집중되어야 할 작동기억 용량이 축소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Schmader와 Johns(2003)는 자신에게 불리한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개인은 불쾌한 생각들을 억누르려 할 것이며, 이것은 인지적 자원의 추가적인 소모를 유발하여 작동기억 용량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과제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Turner와 Engle(1989)이 개발한 단어회상 및 수학등식 풀이(예. $2+5=8$, true or false?)의 이중과제를 통해 작동기억의 정보처리 및 저장기능을 조사했으며, 고정관념의 위협조건에서 과제를 수행했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단어를 적게 회상하여 고정관념의 위협에 의해 작동기억 저장용량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정관념의 위협과 수학기험결과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을 때, 작동기억 용량의 영향을 제거하면 이들 간의 관계는 사라졌으며, 고정관념의 위협으로 인한 수학기험결과의 차이가 작동기억 용량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Beilock과 동료들(2007)은 Schmader와 Johns(2003)보다 작동기억과 고정관념 위협 간의 관계에 좀 더 세분화하여 접근했다. 고정관념 위협이 작동기억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고정관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과제수행단계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작동기억의 중앙집행기(central executive) 자원이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다(Ashcraft & Kirk, 2001). 두 번째 가능성은 과제수행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복잡한 인지과정의 수행시 내적 언어 및 사고과정을 지원해야 할 작동기억의 음운자원이 손실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Beilock 등 (2007)의 연구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답을 찾는 수학과제(예 : $(51-19)/4=? \rightarrow$ Is it a whole number?)를 제시하고, 어려운 문제에는 작동기억

의 인지부하를 확대하기 위해 숫자크기를 증가시켰다). 여기에서 작동기억 중앙집행기의 자원은 각 과제에서 난이도가 증가해도 유사한 성격의 단계만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자원의 크기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데 비해, 작동기억 음운자원은 중간단계수가 증가하고, 각 단계별로 결과물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내적 언어로 반복하고 저장하는 부담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제는 Schmader와 Johns(2003)가 사용한 작동기억 용량에 대한 과제보다 고정관념 위협으로 인해 특히 작동기억 기능의 어느 영역이 방해를 받는지를 세분화하여 검증하는데 좀 더 적절한 도구로 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Beilock 등(2007, 실험 1)에서는 수학영역의 성별간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는 지시문을 제시했을 때 여학생 피험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정확도는 이 지시문을 제시하기 전보다 유의미하게 떨어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제 조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험 2에서는 어려운 수학문제를 수평으로 제시할 때보다 수직으로 제시할 때보다 작동기억의 음운자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운자원을 요구하는 다른 이중과제(예 : gib, nup과 같은 일련의 무의미철자 암기)를 함께 제시하면 정답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험 3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난이도의 수학문제를 수평과제와 수직과제로 제시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수평으로 제시할 때만 고정관념 위협의 조건에서 정답률이 하락했으며, 이것은 피험자들이 과제수행 시 수행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생각과 수행결과에 대한 걱정들을 통제조건에서보다 더 많이 보고한 것을 고려할 때 고정관념 위협조건에서 과제수행시의 피험자의 생각과 느낌이 작동기억의 음운자원을 소모하여 과제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 위협 효과는 실험 4에서 어려운 문항들을 수평방식으로 제시해도 수차례의 반복연습을 거친 연습한 문항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작동기억의 과부하를 많은 연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작

동기억이 고정관념 위협 효과를 매개하고 있으며, 작동기억 부하의 감소를 통해 고정관념 위협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기술한 것처럼 고정관념의 위협은 개인, 상황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매개된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요인 중 특히 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매개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어느 한 요인만을 골라내는 것이 이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중 가장 전형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특징들을 기반으로 고정관념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생각해보는 것은 가치있을 것이다.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반응 및 적응

고정관념의 위협 효과가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의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면 개인은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자신은 연관이 없으며, 이러한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취하는 방향으로 동기화될 것이다.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정관념과 직결되는 영역회피(domain avoidance)와 비참여(disengagement) 및 장기적으로는 비동일시(disidentification)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영역회피

Steele와 Aronson(1995, 실험 3)은 피험자들에게 여러 다양한 활동들과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제시한 후 활동에 관한 자신의 선호도 및 각각의 성격 특징과 실제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기평가를 할 것을 요청했다. 고정관념의 위협 조건에서 지능검사에 참여했던 흑인 피험자들은 통제조건에서 실험에 참가했던 다른 흑인 피험자들이나 백인 피험자들에 비해 흑인과 관련된 활동(예 : 랩 음악 듣기, 야구경기)에 대해서 낮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성격특징(예 : 게으른, 공격적인)과의 부합성 정도에 관해서는 고정관념 위협조건에서 자신과의 연관성이 좀 더 낮다고 응답했다. Davies 등(2002, 실험 2)에서는 시간제한을 두고 가능한 많은 언어 및 수리영역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지시했을 때 성 고정관념적인 광고를 사전에 시청한 조건의 여학생들은 수리영역의 문항

- 1) 이 과제에서는 숫자가 커질수록 거쳐야 하는 단계가 늘어나고(예 : (43-16)/3은 (7-2)/5보다 뺄셈에서 한 단계를 더 필요로 한다), 단계별로 작동기억에 저장되는 정보량이 증가한다.
- 2) Trobovich와 LeFevre(2003)은 수학등식을 수평으로 제시할 때가 수직으로 제시할 때보다 중간단계에서 저장해야 하는 정보량이 증가하여 더 많은 음운자원을 소모한다고 했다.

들보다는 언어영역의 문항들에 좀 더 많이 응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고정관념과 연관된 영역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립적인 광고를 보았던 조건에서 여학생 및 남학생 피험자들이 수리영역의 문제들을 언어영역의 문제들보다 좀 더 많이 선호하여 응답했던 것과는 상반되었다. Davies et al.(2002, 실험 3)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고정관념적인 광고와 중립적인 광고를 각각 제시한 후 대학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해 자신이 선호하는 정도를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중립적인 광고의 조건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비슷하게 수리영역의 전공 및 진로(예 : 엔지니어, 수학자, 컴퓨터공학... 등)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언어영역(예 : 작가, 언어학자, 평론가... 등)에 대한 것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한 반면, 성 고정관념적인 광고조건에서는 여학생들이 수리영역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언어영역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개인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영향을 경험할 때, 이에 대한 단기적 대처방안으로 자신과의 연관성을 무시하거나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연결되는 영역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참여

한 개인에게 특정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나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인해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개인은 그 영역의 가치를 평가절하(devaluing)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을 감소시키면서(discount) 이 영역을 자기개념의 중요한 영역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신과의 연관성을 감소시킨다. 영역회피와 비참여와의 차이점은 영역회피가 고정관념과 연관된 영역밖에서 머무르는 단순한 방어로 볼 수 있다면, 비참여는 자기개념과 그 영역에서의 부정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연관성을 감소시키면서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지속시키게 하는 심리적인 적응이다.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성적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성적을 산출해내는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함을 통해 비록 성적이 좋지 않아도 성적이 좋은 다른 학생의 자존감 수준과 동일한 자존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Schmader, Major와 Gramzov(2001)은 흑인, 백인 및 라틴계 대학생들에게 학업성적의 평가절하경향(예 :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나에게

있어 중요하다”) 및 불공정한 평가방식(예 : “시험방식에는 나에게 불공정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등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은 백인보다 평가방식이 좀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참여의 형태중의 하나인 거부³⁾를 von Hippel 등 (2005)에서는 다양한 고정관념의 표적들(예 : 시간제 근로자, 양로원 노인)에서 다루었으며, 고정관념의 타당성을 거부하는 반응에 동일한 집단의 고정관념 표적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실험 1의 고정관념 위협 조건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능력과 기술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취약하다는 글을 읽게 한 후 일련의 문장들(예 : ‘직업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정도를 조사했을 때, 피험자들의 긍정적인 인상형성경향⁴⁾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정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실험 2에서는 양로원거주 노인과 독립적인 주거형태에서 살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연령증가에 따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을 자주 경험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양로원 거주 노인들의 경우 실제 단어회상검사의 점수가 독립적인 주거형태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보다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지적 능력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더 낮았다. 또한 양로원거주 노인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인상형성에 대한 경향이 강할수록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양로원 거주 노인이 독립적인 주거형태에 살고 있는 노인들보다 좀 더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의한 위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인상형성경향이 강한 노인들의 경우 자기방어적 반응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거부를 통해 고정관념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동일시

고정관념의 위협으로 인해 중요한 성취상황에서 과제 수행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면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존

3) Miller와 Kaiser(2001)는 거부를 비참여의 다양한 형태 중 자발적인 비참여(voluntary disengagement)로 구분하였다.

4) 이 연구에서 인상형성경향은 BIDR-IM(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Paulhus, 1991)을 통해 측정했다.

감(self esteem)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은 긍정적인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방향으로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위협에 연관된 영역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적응방식을 장기적으로 택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 영역에서의 저조한 수행결과가 자기개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Steele 등(2002)에 의하면 비동일시는 고정관념의 영역에 대한 비참여에서 개인이 여전히 이 영역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참여와 구분된다. 비동일시는 한 개인에게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영역인 취미활동 등의 분야에서는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적이 자신과 주위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하는 기준이 되며, 이것이 향후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동일시가 단순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sborne(1997)이 흑인과 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에 걸쳐 실시한 종단연구는 이러한 비동일시 경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GPA 및 기초 과목 4가지 영역에 대한 시험점수를 학업 성취도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이 수치와 자존감 검사(Rosenberg, 1965)간의 상관관계를 학년의 변화에 따라 추적하였다. 백인 학생들의 경우 학업 성적과 자존감 수치와의 상관관계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었던데 비해 흑인 학생의 경우 이 상관관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계속적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흑인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흑인 남학생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학업 성취도는 낮아졌으나, 자존감은 백인 학생들보다 높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학업 성취도와 자존감 간에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학업성취도 영역에 대한 이러한 비동일시는 특정 교과목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 영역에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고정관념의 위협으로 인한 단기적, 장기적 결과인 비참여와 비동일시는 자기방어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비참여는 고정관념의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비동일시는 비참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영역과의 동일시하는 정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Nosek 등 (2002)에서도 보고된 것과 같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수학과와 동일시정도가 낮았던 것

도 초기에 수학시험의 상황에서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수행결과가 저조하여 수학 영역에 대한 회피 혹은 거부했던 반응이 만성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고정관념의 위협으로 인해 개인이 그 영역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이 그 영역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한 영역과 자신과의 연관성을 배제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동일시는 개인의 성취동기 저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조한 과제수행도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성별, 인종, 문화 등에 공정한 검사 설계(Spencer et al., 199), 과제수행에 불리한 집단 정체성으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키고,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것(Ambady, Paik, Steele, Owen-Smith, & Mitchel, 2004), 반복연습을 통한 과제수행의 자동화(Beilock et al., 2007), 성공적인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Marx & Roman, 2002; McIntyre, Paulson, & Lord, 2003) 등을 통해 고정관념 위협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 성공적인 역할모델을 통해 고정관념 위협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공적인 역할모델 제시

고정관념의 표적들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상반되는 내집단의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고정관념 위협의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Marx와 Roman(2002, 실험 2)에서는 수학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실험자에 대한 글을 읽게 하였다. 글의 내용에 실험자가 수학영역에서 낮은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기술되어 있었을 때 여학생들의 수학시험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낮았지만, 실험자가 수학영역에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 여성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을 때 여학생들의 수학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더 좋았다. McIntyre 등(2003, 실험 2)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

다. 수학시험에 참가하기 전에 건축, 법학, 물리학 및 발명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네 명의 여성에 대한 전기를 읽은 후 수학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결과가 더 좋았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지만 네 종류의 회사의 성취에 관한 글을 읽은 통제조건의 경우 여학생의 점수는 남학생의 것보다 더 낮았다. 위의 두 연구에서 학생들이 역할모델을 글을 통해서만 접촉한 것을 고려할 때 이 결과들은 고정관념의 위협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성공적인 역할모델을 간접적으로만 제시하는 것도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역할모델을 제시했다고 해서 모두 고정관념 위협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정관념 위협에 처한 개인이 역할모델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 Lockwood와 Kunda(1999)는 높은 성취도를 보여준 역할모델이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인물로 피험자들이 인식했을 경우 여학생들의 고정관념 위협효과가 감소되지 않음을 보고했다. Mclyntre 등(2005, 실험 2)에서는 역할모델의 수와 고정관념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와의 관계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수학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사례를 한 가지만 제시하는 조건과 다양한 긍정적인 사례(예 : 건축가, 물리학자, 발명가)를 제시하는 조건에서 어려운 수학시험을 실시했을 때, 여학생의 점수는 1개의 긍정적인 사례를 읽은 조건보다 2, 3개의 사례를 읽은 조건에서 더 좋았으며, 4개의 글을 읽은 조건에서는 여학생들의 성취도가 가장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우수사례가 수학영역과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따라 고정관념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면 가능하면 다양한 많은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고정관념 위협 연구의 미해결과제

지금까지 고정관념 위협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었지만, 고정관념 위협의 개념에 대한 명료한 정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정관념 위협에 관한 개념에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자신에게 적용

될 것을 두려워하는 고정관념 표적 개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관점(예 : Steele & Aronson, 1995; Croizet & Claire, 1998), 개인의 저조한 수행결과를 통해 부정적으로 평가될 내집단을 부각시키는 관점(예 : Schmader & Johns, 2003; Bosson, Haymovitz, & Pinel, 2004), 고정관념 위협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정서를 강조하는 관점(예 : Aronson & Inzlicht, 2004) 등 다양한 관점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고정관념 위협이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개념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는 고정관념 위협의 영향요인과 매개경로에 대해 아직까지 체계화된 이론적 모형이 부족한 것과도 연결될 것이다. 고정관념 위협의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고정관념 위협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도 차이를 가져와 측정도구들은 표적 개인만의 입장을 강조하거나(예 : Steele & Aronson, 1995) 혹은 집단 이미지에 대한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예 : Schmader & Johns, 2003).

이에 비해 최근 Sapiro와 Neuberg(2007)는 고정관념 위협을 고정관념 위협의 표적이 되는 대상(자신, 내집단)과 고정관념 위협의 근원(자신, 외집단 타인, 내집단 타인)에 따라 질적으로 서로 다른 여섯 가지 유형(예 : Self-Concept Threat, Group-Concept Threat, Group-Reputation threat(Outgroup))으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다. 고정관념 위협의 근원을 결정하는 요인은 외집단의 타인 혹은 내집단의 타인에게 자신의 낮은 과제수행결과가 알려질 것을 의식하는 것, 부정적인 고정관념 집단에 속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해서 오는 것, 부정적인 이미지의 내집단과 자신과의 연관성을 타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 혹은 타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고정관념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고정관념 표적의 대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고정관념과 연관된 행동이 자신 혹은 내집단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정도,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연결된 영역과의 동일시 정도, 내집단과의 동일시정도, 자신이 내집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자신의 낮은 과제수행결과가 자기개념이나 내집단 이미지에 주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를 들 수 있다. Sapiro와 Neuberg(2007)에 의하면 고정관념 위협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요인들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대체로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고

정관념 위협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정관념 위협의 여섯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자기개념 위협은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인한 자신의 낮은 수행결과가 자기개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걱정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며, 여기에서는 자신이 고정관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인식, 영역과의 동일시정도, 자신이 고정관념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의 과제수행결과를 외집단에서 내집단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 내집단명성의 위협은 자신의 낮은 수행결과가 외집단에 알려질 것을 의식하는 정도, 자신과 고정관념 집단을 동일시하는 정도, 자신이 내집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타인이 고정관념을 타당하게 인정한다고 자신이 믿는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정관념 영역과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하며, 고정관념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에게는 자기개념 위협이 나타나며, 영역과의 동일시정도가 낮고, 스스로는 내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고정관념을 타당하게 여긴다고 믿으며, 자신의 낮은 수행결과가 외집단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개인들에게는 내집단명성의 위협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된 고정관념 위협의 영향 요인들에 한층 세분화되어 접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시된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된 다양하면서, 때로 서로 모순된 연구결과들을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고정관념 영역과 자신과의 동일시 정도가 높은 것이 모든 상황의 고정관념 위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은 남성의 정서성에 대한 연구(Koenig & Eagly, 2005)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의 동일시 경향이 적은 남성들에게도 고정관념 위협이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영역과의 동일시가 높은 개인들에게는 이 영역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지 못했을 때 자기개념 위협이 나타나고, 영역과의 동일시 경향이 낮은 개인에게도 외집단에서 이 결과를 내집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걱정할 때 내집단명성의 위협이 나타나 과제수행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고정관념 위협의 유형을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고정관념 위협은 서로 독립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 위협의 유형에 대처하는 방안들을 차

별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역과의 동일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개념 위협에서는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른 영역들을 발견하게 하여 고정관념과 연관된 영역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고정관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개인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전략들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내집단명성의 위협에서는 한 개인과 내집단과의 거리를 조정하여 내집단과의 동일시경향을 축소시키고, 외집단이 고정관념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개인이 믿게 하는 방법들이 고정관념 위협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위에 기술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고정관념 위협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정관념 위협은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의 활성화와는 달리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의식적으로 지각해야 일어난다. 과제수행상황과 고정관념과의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단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과제수행결과가 자신 혹은 내집단의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 생긴다.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여 자신의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걱정하게 하는 상황, 혹은 개인의 능력을 진단하는 상황 등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결과가 외집단에게 알려져 이를 통해 자신이나 내집단을 평가할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자신의 수행결과를 의식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는 과정을 동반하며 개인의 과제수행을 방해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정관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적인 과정을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고정관념의 타당성에 대한 거부, 반복연습을 통한 인지과정의 과부하 감소, 성공적인 역할 모델의 제시 등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고정관념 위협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는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한 집단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구사회보다 고정관념 위협이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정관념 위협은 자신의 이미지에 미칠 영향만을 걱정하는 단일 유형으로만 나타나기 보다는 내집단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apiro와 Neuberg(2007)가 제안한 다양한 유형의 고정관념 위협을 가질 때 고정관념 위협의 어느 한 가지 유형만에 대처하는 전략을 개인

이 사용했을 경우 다른 유형의 고정관념 위협은 여전히 남아 과제수행을 방해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고정관념 위협을 살펴보고, 대처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고정관념 위협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고정관념 위협을 연구자가 자체개발한 방법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의 차이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Steele와 Aronson(1995)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시켜 고정관념 위협을 측정했고, Schmader와 Johns(2003)는 피험자 개인의 낮은 수행결과를 통해 피험자가 속한 집단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고정관념의 위협을 측정했다. 후속연구에서는 고정관념 위협의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방법을 개발하여 연구들 간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정적인 고정관념 집단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이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외집단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저조한 과제수행결과를 다루었다. Sapiro와 Neuberg(2007)에 의하면 고정관념 위협은 내집단 내부에서도 가능하며, 개인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과제 수행결과를 통해 자신의 명성이나 집단의 명성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집단내 타인들이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내집단의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고정관념 위협에 대해서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사회적 낙인과 연관된 사회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낙인과 연결되는 사회집단들에서 모두 동일한 경로를 통해 고정관념 위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만, 동성연애자들은 이 성향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적을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해 고정관념 위협이 나타난다면, 인종, 성별과 같이 집단 동일시 경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정관념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집단 동일시 경향에 따라 나타나는 고정관념 위협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작업도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고정관념 위협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요인들 간의 결합에 대한 검증, 단일한 유형의 고정관념 위협을 관찰하는 상황과 서로 다른 유형의 고정관념 위협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세분화된 탐색, 고정관념 위협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개발, 내집단 안에서의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고정관념 위협의 이론적 모형에 대한 보완이 요청된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정관념의 위협에 대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 및 이로 인한 단기적, 장기적 결과들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고정관념 위협은 다양한 집단 및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내집단과 고정관념 영역이 중요할수록 개인의 과제수행결과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고정관념 위협은 단기적으로 고정관념 영역에 대한 회피와 비참여를, 장기적으로는 비동일시로 이어지며, 이것은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연구는 고정관념 위협의 다양한 질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들의 특성에 대한 세분화된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대처방안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Ambady, N., Paik, S. K., Steele, J., Owen-Smith, A., & Mitchell, J. P. (2004). Deflecting negative self-relevant stereotype activation : The effects of individ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401-408.
- Aronson, J., & Inzlicht, M. (2004). The ups and downs of attributional ambiguity : Stereotype vulnerability and the academic self-knowledge of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15*, 829-836.
- Aronson, J., Lustina, M., Good, C., Keough, K., Steele, C. M., & Brown, J. L. (1999). When white men

- can't do math : Necessary and sufficient factors in stereotype threa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29-46.
- Ashcraft, M. H., & Kirk, E. P. (2001). The relationships among working memory, math anxiety, and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General*, 130, 224-237.
- Beilock, S. L., Jellison, W. A., Rydell, R. J., McConnell, A. R., & Carr, T. H. (2006). On the causal mechanisms of stereotype threat : Can skills that don't rely heavily on working memory still be threatene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059-1071.
- Beilock, S. L., Rydell, R. J., & McConnell, A. R. (2007). Stereotype threat and working memory : Mechanisms, alleviations, and spillove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General*, 136, 256-276.
- Blanton, H., Christie, C., & Dye, M. (2002). Social identity versus reference frame comparisons : The moderating role of stereotype endorse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253-267.
- Blascovich, J., Spencer, S. J., Quinn, D., & Steele, C. (2001). African Americans and high blood pressure : the role of stereotype threat. *Psychological Science*, 12, 225-229.
- Blascovich, J., Spencer, S. J., Quinn, D., & Steele, C. (2001). African Americans and high blood pressure : the role of stereotype threat. *Psychological Science*, 12, 225-229.
- Bosson, J. K., Haymovitz, E. I., & Pinel, E. C. (2004). When saying and doing diverg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247-255.
- Brown, R. P., & Josephs, R. A. (1999). A burden of proof : Stereotype relevance and gender differences in math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246-257.
- Croizet, J. C., & Claire, Y. (1998). Extending the concept of stereotype threat to social class : The intellectual underperformance of students from low socioeconomic background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588-594.
- Davies, P. G., Spencer, S. J., Quinn, D. M., & Gerhardstein, R. (2002). Consuming images : How television commercials that elicit stereotype threat can restrain women academically and professionall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615-1628.
- Ellemers, N., Wilke, H., & Van Knippenberg, A. (1993). Effects of the legitimacy of low group or individual status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status-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66-778.
- Gonzales, P. M., Blanton, H., & Williams, K. J. (2002). The effects of stereotype threat and double-minority status on the test performance of Latino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659-670.
- Herrnstein, R. J., & Murray, C. (1994). *The bell curve : Intelligence and class structure in American life*. New York : Free Press.
- Inzlicht, M., & Ben-Zeev, T. (2000). A threatening intellectual environment : why women are susceptible to experience problem-solving deficits in the presence of men. *Psychological Science*, 11, 365-371.
- Klein, K., & Boals, A. (2001). The relationship of life event stress and working memory capacit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 565-579.
- Learner, M.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 Plenum Press.
- Levy, B. (1996). Improving memory in old age through implicit self-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92-1107.
- Major, B., Gramzow, R. H., McCoy, S., Levin, S., Schmader, T., & Sidanius, J. (2002). Perceiving personal discrimination : The role of group status and legitimizing ide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269-282.
- Marx, D. M., & Goff, P. A. (2005). Clearing the air : The effect of experimenter race on target's test

- performance and subjective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645-657.
- Marx, D. M., Stapel, D. A., & Muller, D. (2005). We can do it : The interplay of construal orientation and social comparison under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432-446.
- Marx, D. M., & Stapel, D. A. (2006a). It's all in the timing : Measuring emotional reactions to stereotype threat before and after taking a tes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 687-698.
- Marx, D. M., & Stapel, D. A. (2006b). Distinguishing stereotype threat from priming effects : On the role of the social self and threat-based concer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243-254.
- Miller, C. T., & Kaiser, C. R. (2001).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coping with stigma. *Journal of Social Issues*, 57, 73-92.
- Nosek, B. A., Banaji, M. R., & Greenwald, A. G. (2002). Math=male, me=female, therefore math≠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44-59.
- Osborne, J. W. (1997). Race and academic disidentifi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728-735.
- Osborne, J. W. (2001). Testing stereotype threat : Does anxiety explain race and sex differences in achieve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6, 291-310.
- Osborne, J. W. (2007). Linking stereotype threat and anxiety. *Educational Psychology*, 27, 135-154.
- Paulhus, D. L. (1991). Measurement and control of response bias.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 Academic Press.
- Quinn, D. M., & Spencer, S. J. (2001). The interference of stereotype threat with women's generation of mathematical problem-solving strateg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 55-71.
- Rosen, V. M., & Engle, R. W. (2002). Working memory capacity and suppress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9, 418-43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piro, J. R., & Neuberg, S. L. (2007). From stereotype threat to stereotype threats : Implications of a multi-threat framework for causes, moderators, mediators, consequences, and interven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107-130.
- Schmader, T. (2002). Gender identification moderates the effects of stereotype threat on women's math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194-201.
- Schmader, T., & Johns, M. (2003). Converging evidence that stereotype threat reduces working memory capac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440-452.
- Schmader, T., Johns, M., & Barquissau, M. (2003). The costs of accepting gender differences : The role of stereotype endorsement in women's experience in the math domain. *Sex Roles*, 50, 835-850.
- Schmader, T., Major, B., & Gramzow, R. H. (2001). Coping with ethnic stereotypes in the academic domain : Perceived injustice and psychological disengag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57, 93-111.
- Shih, M., Pittinsky, T. L., & Ambady, N. (1999). Stereotype susceptibility : Identity salience and shifts in quantitative performance. *Psychological Science*, 10, 80-83.
- Spencer, S. J., Steele, C. M., & Quinn, D. M. (1999). Stereotype threat and women's math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4-28.
- Steele, C. M., & Aronson, J. (1995). Stereotype threat and intellectual test performance of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97-811.
- Steele, C. M. (1997). A threat in the air : How stereotypes

- shape the intellectual identities and performance. *American Psychologist*, 52, 613-629.
- Steele, C. M., Spencer, S. J., & Aronson, J. (2002). Contending with group image : The psychology of stereotype and social identity threat.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34, pp.379-440).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Stone, J., & McWhinnie, C. (2008). Evidence that blatant versus subtle stereotype threat cues impact performance through dual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445-452.
- Stricker, L. J., & Ward, W. C. (2004). Stereotype threat, inquiring about test takers' ethnicity and gender, and standardized test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665-693.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Eds.),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7-24). Chicago : Nelson-Hall.
- Turner, M. L., & Engle, R. W. (1989). Is working memory capacity task dependent?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8, 127-154.
- von Hippel, W., von Hippel, C., Conway, L., Preacher, K. J., Schooler, J. W., & Radvansky, G. A. (2005). Coping with stereotype threat : Denial as an impression management strate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22-35.
- Wheeler, S. C., Jarvis, W. B. G., & Petty, R. E. (2001). Think unto others : The self-destructive impact of negative racial stereotyp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173-180.

Stereotype Threat and Cognitive Task Performance

Hong Im Shin

Yonsei University

What happens to individuals in a social performance situation when a negative group identity is activated? Steele and Aronson(1995) reported that African Americans performed much worse in intellectual tasks than their white peers when negative stereotypes were made salient. For this phenomenon called 'stereotype threat', a number of research have been recently demonstrated. This underperformance phenomenon seems to result in disengagement and disidentification with a domain, where stereotype threats exist. Therefore in this article, individual and situational factors which account for this disruptive effect should be explored. Research on various mediators of stereotype threat effect will help us to explore the nature of stereotype threat and to distinguish among different stereotype threats.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process will lead to develop effective coping strategies for these threats.

Keywords: Stereotype threat; Task performance; Situational factor; Individual difference factor; Disengagement; Disidentification; Patterns of stereotype threat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7월 5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8월 11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8월 24일